

■ 2023년도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4:00~17:00
- 회의장소 : 온라인회의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정희, 이경복, 이동은, 최진석, 현지예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르와 분야별로 각각 진행되었던 창작 사전기획 과정 및 기반 조성 활동 지원사업들을 ‘창작의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에서는 4개 유형 중, 1개 유형이 [창작의과정(예술과기술)] 사업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교류확산형, 비평연구형, 열린활동형이라는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 본 사업은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표현과 소통, 그리고 창작과 향유라는 예술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또한 예술과 기술 융합의 담론 형성 및 협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예술-기술 융합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기획·실행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 행정결격 등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는 29건의 지원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공모 유형은 서류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그 평가 기준 및 가중치는 사업목적의 적합성(30%), 추진계획의 충실성(40%), 예술현장 파급력(30%)로 책정했습니다. 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되어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력이 확장된 기술융합 예술작품의 창작 및 창작 기반의 구축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력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예술활동이 현장에서 어떠한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5인의 심의위원회는 오랜 기간 모든 지원서를 전수 검토하고 각자 사전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기한 일시에 비대면 온라인 심의를 통해 개별 심의위원들의 사전평가를 기준으로 한 오랜 시간 토의를 거친 끝에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18건의 최종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술 영역과 가치 확장 및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 확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 기반 조성 및 향유 활성화, 예술과 기술 융합의 담론 형성 및 협업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술이 과학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얼마큼 진지하게 탐구했는가, 예술과 과학기술의 만남에 있어서 창작 과정 뿐만 아니라 향유자와의 만남의 장에서의 상상력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는 사업 내용에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의 접근성 제약 등 다양한 이유로

침체되어 있는 예술창작 환경에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동력 삼아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의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9건의 지원서들은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NFT, VR 등 최근의 과학기술 혁신 담론이 포함하는 키워드들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예술 창작물의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 향유자의 층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자 기획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의미와 층위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과학기술적 결합에 보다 중점을 둔 일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예술의 본연성을 회복하는데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의 기획이 있었으며, 침체되었던 예술 창작자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서 예술과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모색하는 기획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참여자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의 의미와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의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가 실천하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운 참가자들은 최대한 그 기획을 응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선정사업별 적정 지원예산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건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는 총 18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8건의 지원서들은 한층 무르익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예술의 파급력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색이 그들만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창작의과정(예술과기술)]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이 예술을 활성화하는데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포섭하는 와중에, 과학기술에 경도되어 예술 본연의 목적이 망각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심의위원회는 생각합니다. 본 공모의 지원자들은 모두 예술 행위 주체로서 예술 활동과 향유의 새로운 국면을 슬기롭게 준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원자 여러분의 이러한 실천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